

경건주의와 묵상 운동, 그리고 한국의 묵상운동의 자신학화

(박대영, 광주소명교회 책임목사, <묵상과 설교> 책임 편집)

●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논문이 아니라 자기 보고서다. 유시민 씨의 <나의 현대사>처럼 나를 거쳐 간 묵상운동을 소개하고 자신학화의 흔적을 찾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학화”라는 개념은 나에게 모호하게 남아 있다. 작년 포럼에 참석하고 내가 적어놓은 메모마저도 생소하다. “자신화는 나만의 신앙양심과 존재방식, 사유언어와 삶의 문법, 메타내러티브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근거하여(근본) 나 자신의 세계관과 욕망에 대해 상고하고 묵상하여(묵상) 내 존재를 완성해가는 여정이다. 이를 위해서 해체와 재정의, 회심과 리셋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이 보편성, 포괄성, 포용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자신을 상대화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더 나아가 실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되게 하고 존재 안에 문화를 형성해간다. 나에게 대한 해석을 위해 내가 살아온 시대와 살고 있는 시대의 토양(사람, 환경, 물리적, 인문적)과 내가 들어온 복음, 영향을 준 신학을 고려한다.” 이것은 내가 ‘세계관적 사유, 세계감적 실천’이라고 묵상을 정의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세상이 만나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되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묵상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보면, 멀게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시 1:1)고 했던 구약의 신앙전통이 있고, 광야의 시험을 말씀 묵상을 통해 이겨낸 예수의 삶이 있고(마 4장), 자신들의 고난을 시편 2편을 통해서 해석했던 초대 교회의 전통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그 성경 말씀에 대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상고”(행 17:11)하였던 베뢰아 사람들의 모습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한 계시록의 요한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종교개혁을 통해 소위 성직자나 교회의 손에 있었던 성경이 성도들에게로 건네져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졌지만 정통주의에 의해 그 실현이 유보된 개인성경묵상이 인쇄술의 개발과 성경의 급속한 보급을 통해 경건주의 시대에 비로소 실현된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경건주의 시대에 개인성경묵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현된 배경과 그것을 주도한 야곱 슈페너의 시도, 그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자신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묵상운동이 파라처치(para-church)에서 시작되어 교회로 확대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성서유니온의 역할을 자신학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현재 한국의 묵상운동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자신학화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세 영역 모두 각각의 논문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하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향후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한 예비 연구의 성격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맨 끝에 성서유니온의 묵상운동을 기획하고 토대를 닦은 윤종하 전 성서유니온 총무가 독특하게 기여한 바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는데, 그의 시도 자체가 150년 넘고 120개국 이상에 퍼진 성서유니온의 묵상 운동 안에서 묵상의 한국화, 묵상의 자신학화의 한 측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1. 경건주의의 태동과 자신학적 성격

: 야곱 슈페너의 <경건한 요청(Pia Desideria)>를 중심으로

1.1. 경건주의의 등장배경

1) 경건주의 등장의 작은 배경

경건주의는 160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교회와 사회 갱신운동이다. 경건주의는 신학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강한 자극을 남겼다. 이는 오늘날과 달리 세속과 교회가 나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경건주의는 1600년경에 시작된 신앙적 흐름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경건주의는 1670-75년에 슈페너에 의해 시작된 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경건주의가 등장한 큰 배경과 작은 배경이 있다.

먼저 작은 배경을 살펴보자. 종교개혁에서 정통주의를 거쳐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의 영향이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와 계몽주의 사이에 있으며, 죽은 정통주의를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가 종교개혁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이 제도화되고 신학화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주요 관점들이 현실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이론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은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안에 형성된 종파 사이의 교리 논쟁과 관련이 있다.

종교개혁 후에 생긴 기독교 안의 세 종파인 루터파, 개혁파, 로마가톨릭은 1555년까지 무력으로 싸웠다. 15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가 열리고 루터파와 로마가톨릭이 화해한다. 이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래로 가장 처음으로 서로 적대적인 기독교 종파가 공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인정한 중세의 단일구조가 깨지고 진리가 둘 이상일 수 있는 길이 열린 회의였다. 따라서 1555년은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정통주의가 시작된 해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무력이 아니라 논리로 싸웠다. 그들은 자기 주장을 뚜렷이 하기 위해 논리의 수단이 절실했다. 이 때문에 루터가 앞문으로 내쫓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만다. 교리와 신조가 발전되면서 거대한 교리 체계가 세워졌다. 정통주의 시대를 신조시대, 개신교 스콜라주의, 교리논쟁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00년 즈음에 신앙적 정체성이 불확실해지는 상황, 곧 '경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경건성의 위기 현상은 유럽 전체에 만연했다. **경건성의 위기는 어떤 현상인가?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에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리체계가 개인에게 주관적 확신으로 와 닿지 않아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말한다.**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의식과 정통주의 시대의 교리 논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위기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경건주의다. 종교개혁의 3세대에게는 순수한 교리나 거대한 신조의 체계는 절실하지 않았고,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경험되는지가 관심

사였다. 넓게 보면, 영국의 청교도 운동, 네덜란드의 개혁파, 정통주의 안에 있던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 독일 루터파 정통주의 안의 갱신 운동, 프랑스 가톨릭의 안센주의 운동, 동유럽 유대교 안의 하씨디즘 운동 등이 모두 1600년 즈음의 경건성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신앙의 흐름들이었다.

물론 경건주의가 교리를 무시하고 삶만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무게 중심을 개인의 삶과 실천에 두었다는 의미다. 세속 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난 정통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반발이 계몽주의다. 교리적 편협성을 반대하고 인간 이성의 자유로움과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이다. 신이 아니라 인간, 계시가 아니라 이성,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향한 믿음이 계몽주의의 연장(mechanic)이었다. 이들은 이성을 토대로 미래를 낙관했다. 처음에는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는 서로를 동지로 여겼지만, 머잖아 둘은 서로 같이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1729년 이후 본격화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의 갈등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둘은 정통주의에 대한 반대와 인간 편의 경험과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계몽주의가 이성을 판단의 근거로 중시했고, 경건주의는 교리적인 믿음보다 개인의 체험과 경험에 근거한 믿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둘 다 ‘개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지로 여긴 것이다. 또 둘은 미래를 낙관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 정통주의가 오직 미래에 남은 것은 예수의 재림뿐이라는 식으로 여긴 채 현실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던 반면에,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미래에 대해 열린 의식을 갖고 낙관했다. 다만 그 낙관의 근거가 계몽주의에게는 이성의 가능성이었지만, 경건주의에게는 성경의 약속과 교회사적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2) 경건주의 운동의 큰 배경

그렇다면 경건주의가 일어난 ‘큰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세에서 근대의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큰 변화에 있다. 중세에서 신앙은 개인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일하고 보편적인 교회, 단일한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 제도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구원을 담보했다. 신앙은 구원하는 제도에 소속되는 것이고, 이것을 체계화 한 것이 성례전이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과 르네상스로 중세가 해체되면서 삶과 신앙의 틀이 변했다. 제도적 교회가 인정한 객관적인 신앙구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와 닿는 것을 원했다. 주관적인 신앙 확인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문제가 되었다. 집단적 소속감보다 개인적 인격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의 이런 변화는 중세에서 계몽주의로의 이전하는 과정을 대표하는 현상이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와 세속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었다. 교회와 국가, 신앙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두 영역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다. 경건주의는 교회 영역과 세속 사회가 분리되기 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운동이며 계몽주의 시대에까지 이어진 운동이다. 경건주의는 두 영역이 나뉘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때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건주의는 사회적 영역을 무시하고 개인의 내면으로만 침잠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큰 오해다. 경건주의 운동의 시대에 교회를 갱신한다는 것은 사회를 갱신한다는 말과 같았다.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와 세속 영역 모두에 영향을 끼친 것은 경건주의가 일어난 시대적 특징 때문이기도 했다. 이는 개인의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묵상운동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1.2. 경건주의의 본질

1) 갱신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

경건주의의 본질은 갱신운동이다. 경건주의 초기 역사의 대부분은 사실상 필립 야곱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쓴 <경건의 요청>(Pia desideria, 1675)은 교회 갱신의 기획서로서 경건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전에 갱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사람이 테오필 그로스게바우어(Theophil Großgebäude)다. 그가 1661년에 쓴 <황폐한 시온에서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라는 책에서 그는 당시의 설교를 맹비난한다. 설교는 많은데 신앙적 회심과 구원의 열매는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교회가 피폐하여 비신앙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슈페너는 1662년 튀빙겐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교회의 타락과 갱신의 필요성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슈페너에게 종교개혁은 미완에 그쳤다. 그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이상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건주의 운동 역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북미대륙으로 이주한 경건주의자들은 유럽에서의 갱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였으며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은 기성 교회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의 갱신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사회의 갱신 가능성은 인정한다. 이들은 구원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의 집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작은 모임들을 만들었다. 이 두 집단을 ‘탈교회적 경건주의’라고 부른다. 반면에 슈페너를 위시한 ‘교회적 경건주의자들’은 교회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치료하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2) 실천과 행동을 중시한 경건주의

슈페너를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적 종말론을 표방한 정통주의와 달리 후천년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었기에 미래를 낙관했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실천의 동력이 생긴다. 슈페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다. 믿음을 말할 때도 행동 혹은 실천을 포함한 믿음의 개념을 표방했다. <경건의 요청> 서문을 꿰뚫고 있는 것이 믿음은 삶의 현장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회를 고칠 처방과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는 교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독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서문의 1/3이 “우리 같이...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경건주의는 철저하게 목회지향적이며 실천지향적이다. 그는 당시 정통주의가 목회 현장과 멀어지고 현학적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신학 교육의 갱신을 제안한다.

3) 갱신의 주체와 목표

갱신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데서 계몽주의의 차이를 보인다. 그는 교회와 사회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갱신과 좁은 범위의 부분적인 갱신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갱신은 세속 정권과 성직자들이 추진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인 갱신뿐이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 부분적인 갱신이다. 즉 갱신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참여자이고 담당자다.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갱신을 담당하는 객체다.

경건주의는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었다.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경건주의의 중요한 관점이었다. 인간이 변하지 않고는 갱신에 참여할 수 없다. 즉 경건주의의 갱신론은 제도의 갱신이나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정통주의 갱신과 뚜렷이 구분된다. 정통주의가 법적인 치를 통해 전체 교회를 한꺼번에 개혁하려고 했다면, 경건주의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신앙의 헌신을 통해 누룩이 퍼지듯이 점진적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경건주의의 갱신의 핵심에 ‘중생론’이 자리 잡고 있다.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며 기초다. 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성화는 이 갱신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구원 과정은 참 믿음으로 가능한데, 슈페너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표현을 써서 삶의 실천이 없는 당시의 신앙행태를 비판했으며, 이 믿음은 열매와 행함, 윤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말한다. 경건주의 운동은 성화론에 초점을 둔 신앙운동이며 신학체계다. 그리스도인의 완전론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주장은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주장한 루터의 믿음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건주의 운동은 평신도 운동을 지향한다. 개인의 신앙성숙을 강조하는 곳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의 활동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친첸도르프가 이끌었던 형제단 공동체 운동에서 이 점이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독일 안의 다른 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곳으로 퍼졌다. 또한 여성의 지도력 역시 강조되었다. 여성의 활동은 급진적 경건주의 집단에서 훨씬 더 강조되었다. 평신도 지도력의 강조는 사회 개혁과는 연결된다. 구체적인 직업을 가진 평신도가 영적으로 각성되면 자연히 사회 각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실례를 할레 경건주의에서 볼 수 있다. 프로이센 제국의 엘리트교육을 담당했던 할레의 교육 체계는 경건성과 전문성 두 기둥을 교육의 축으로 삼는다. 이곳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프로이센 제국과 독일 전역에서 중요한 활약을 했다.

4) 갱신의 도구인 말씀과 설교

경건주의는 성경에 중심을 둔 운동이다. 슈페너는 <경건의 요청>의 본론 세 번째 단락에서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점화한다. 슈페너는 자신을 신비주의자로 비난하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직접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라면서 자신도 이를 거부한다고 말한다. 슈페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수적이며, 슈페너의 갱신 기획은 성령을 통한 갱신이다. 도덕적 윤리성도 갱신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믿음에 근거한 윤리만이 갱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개혁이 성경을 재발견했다면,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하고 나누어주고 읽도록 격려한 것은 경건주의였다.**¹⁾ 그러나 경건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영의 활동과 실천적 행동과 결합하여 역동적으로 이해했다. 이는 정통주의 안에서 형성된 축자영감설이 성경의 역동적 이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 것과 대조된다.

경건주의 운동이 설교의 갱신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슈페너가 교회 갱신의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설교의 갱신이다. 그에게 강단은 자신의 학식이나 유능함을 뽐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전하는 곳이며, 이

1) 지형은,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서-경건주의는 성경운동(1)”, <활천>, 1995년 9월, 131-135.

를 통하여 회중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슈페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둘째,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어나가는 것이고, 셋째, 경건의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옛 사도들이 했던 방식을 다시 교회 모임에 시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규적인 설교 예배 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모임을 갖는 것이다. 이 모임에서는 공적 예배처럼 한 사람만이 가르치지 않는다. 목회자 외에 은사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틈이 없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하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신앙적 생각을 나눌 수 있다.”

5) 갱신이 일어나는 ‘경건의 모임’

(1) 경건의 모임

급진적 경건주의자들은 교회를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교회 밖의 작은 교회’를 만든 것이다. 반면 교회적 경건주의자들은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제도적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 이를 ‘경건의 모임’이라고 불렀다. 교회의 작은 교회인데, 이는 포괄성을 가지고 외부자들에게 개방된 열린 모임이었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인 작은 모임이 갖는 역동성이 있었다. 여기에 경건주의 교회론의 중심이 있다. 이것이 중세와 구별되는 근대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자유의사를 따라 소속되기도 하고 빠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1555년 이후 기독교 안에서 종파의 복수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신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었다. 신앙은 공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주어진 것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작은 모임은 이런 근대적인 특성에 어울렸던 것이다. 개인의 신앙체험과 확신을 강화할 수 있는 마당도 이런 작은 모임이라야 가능하다. 제도 교회 안의 작은 모임이 정착된 것은 교회사적으로 경건주의가 처음이었다. 한국교회의 소그룹운동의 출발도 이 경건주의 운동의 작은 모임이다. 슈페너는 이런 모임에 갱신의 희망을 걸었다.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작은 단위로 모아서 먼저 영육하고,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본을 보고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는 <경건의 요청> 서문에서 교회 갱신의 전체 구상을 이렇게 요약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성장에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목회자들)은 헌신합시다. 각 목회자들이 개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러한 사람을 먼저 양육하여 이들의 구원의 분량이 점점 성장하게 하면, 나중에는 이들의 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점점 가까이 끌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교구 안에 목회자들이 많을 경우 목회자들끼리 이 모임을 갖도록 권하고, 한 목회자 아래에 신앙 성장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모임이 갖는 유익은 첫째, 목회자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셋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모임에서 성장한 성도들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공적 예배 시간에는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반면에, 소

모임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서 마음에 다가온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더 생각을 깊게 할 수도 있어서 유익하다고 한다. 경건모임에는 목회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런 작은 모임이 우리 시대와 비교해서는 크게 색다른 것이 없고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적인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이 교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한국교회에 묵상운동이 처음 소개될 때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소모임을 만들거나 외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슈페너의 제안은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이었다.

(2)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교리문답교육과 심방

슈페너는 1686년 프랑크푸르트를 떠난 뒤로 드레스덴(1686-1691년)과 베를린(1691-1705년)에서 일하면서는 더는 경건의 모임을 갖지 않는다.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경건의 모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을 같이 한 사람들 가운데 분리주의자들이 생겼다. 특히 경건의 모임의 제안자이며, 경건의 모임의 공동 지도자인 요한 야콥 슈츠(Johann Jakob Schuetz)가 모임에 나갔다. 그는 1670년 후반에 기성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1683년부터는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슈페너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임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지만, 그가 추구한 '비제도적인 작은 성경 모임을 통한 점진적인 교회 갱신'이라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건의 모임은 슈페너 갱신론의 핵심방법이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를 모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자신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

드레스덴에서 그가 사용한 새로운 방법은 '교리문답교육'이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인정된 소모임이었다. 슈페너가 실시한 교리문답교육은 기존의 방식과 많이 달랐다. 기존의 교리문답 교육은 문답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슈페너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이 교육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슈페너는 어른의 참석을 권하였다. 또 성경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교리문답교육도 큰 차이점이다. 교리문답 교육을 받을 때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성경을 직접 찾게 하였다. 교리문답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다. 암기가 필요할 때도 교리문답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하였다. 교회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마당으로 경건의 모임을 생각했던 슈페너는 이제 교리문답교육을 그 마당으로 택하였던 것이다. 슈페너는 심방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가정 예배가 신앙훈련의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경건주의에서다. 가정에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건주의적 모습이다. 슈페너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대중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당을 찾는 것이었다.

슈페너는 황금 같은 중용의 길을 걸었다.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제도권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상을 통해 교회를 갱신하려고 시도하였다. 슈페너는 교리문답적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로 바꾸었고, 지식체계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실천적 변화를 모색했고, 제도적으로 순응하던 삶에서 떠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이

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교회로 바꾸었으며, 분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나갔다.

1.3. 경건주의의 유산과 한국의 묵상운동

오늘날 우리의 묵상운동이나 소그룹 운동의 뿌리를 경건주의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묵상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성경’에 대한 강조, ‘개인’에 대한 강조, ‘삶’과 ‘실천’에 대한 강조, 교회와 사회의 갱신에 대한 강조, 소그룹을 통한 나눔의 강조 등이 모두 경건주의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이 표방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대한 이상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경건주의다. 개별 성도들이나 지역교회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겠지만, 하나의 큰 영적인 흐름으로 등장한 것이 경건주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 땅에서도 1968년 UBF의 <일용할 양식>과 1973년 성서유니온의 <매일성경>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묵상운동은 시작하였고,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성도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신앙으로 변했다. 교회 중심의 종교 활동에 충실한 것이 신앙이라고 여겨지던 때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신앙을 제안한 것이 묵상운동이다. 1960, 70년대에 유행한 부흥회와 성령운동 중심의 신앙양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해나간 것도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묵상운동이었다.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등으로 상징되는 영혼구원을 강조할 때 성경묵상운동은 구원 받은 성도들의 삶과 실천을 새롭게 강조하였으며, 오직 교회 중심의 공적 모임에만 참여하였던 성도들이 경건주의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나 ‘경건의 모임’ 같은 소그룹 운동을 통해 신앙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것도 묵상운동이다. 이 소그룹 운동은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묵상운동 역시 ‘소그룹 묵상나눔’을 강조함으로써 이 흐름을 함께 주도하였다. 경건주의가 설교를 통한 교회 갱신을 강조한 것처럼 묵상운동 역시 묵상과 설교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계승되었다. 다만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과 새마을사업 등으로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 강할 때,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는데, 이 무렵 묵상운동은 교회갱신과 사회갱신의 메시지를 주지 못한 채 개인 경건에 머문 것은 명백한 한계였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여긴 점에서는 경건주의를 이어받고 있다.

2. 한국의 파라처치 운동과 묵상

2.1. 묵상운동의 시작

1) 용어

Meditation, Devotion, Quiet Time, Lectio Divina(lectio-meditatio-oratio-contemplatio) 등의 용어를 우리는 명상, 묵상, 관상, QT 등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해왔으며, 각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수도원 전통의 렉치오 디비나에서는 읽기와 묵상, 기도와 관상을 구분하지만, 대개는 명상, 묵상, QT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르면서, 해석을 강조할 때는 ‘묵상’을, 기도를 강조할 때는 ‘명상’이나 ‘관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QT가 가장 보편적인 용어인데, ‘고요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묵상의 방법보다는 가장 고요한 시간에 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묵상의 성격을 반영하는 용어다. 개신교 안에서는 ‘명상’이라는 용어가 불교나 가톨릭처럼 성경을 의존하기보다는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우리의 새벽예배 혹은 새벽기도회 역시 간접적인 묵상의 한 방식이다. 간단한 설교와 그 메시지를 기초로 한 긴 기도는 모든 묵상의 전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성도들이 묵상교재(혹은 큐티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해석단계부터 직접 관여하여 묵상하는 것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2) 묵상운동의 배경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해 준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우리는 이례적으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권서인을 통해 보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성경이 보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교신, 유영모, 윤치호 등의 일부 평신도를 제외하고는 기록으로 남은 개인성경묵상의 흔적은 주로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난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주로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고, 그 설교도 대부분 교리적인 설교에 치우치거나 부흥회 일변도로 경도되어 성도 개인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권장했을지라도 그것을 직접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교회의 관심은 주로 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이었고, 성숙이원론이 보편화되어 신앙생활은 거의 교회 중심의 삶을 의미했으며, 성경해석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었다. 특히 신학적인 차이로 인한 교회의 분열은 교회가 교조주의적 색채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목사에 의한 성도의 신학 단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2년 재건파 및 고신교단이 이탈했고, 또한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1953년 기장 교단이 이탈했으며, 1959년에 WCC에 대한 신학적 노선의 입장으로 인해 합동과 통합이 나뉘어졌다. 신학적인 문제들, 일본잔재청산의 문제 외에도 내부적인 요인인 지연과 학연 등의 이유도 함께 작용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잘 살아보자’를 외칠 때, 교회에서는 전도의 열기가 높았고, 성경에 기초한 사경회보다는 부흥회를 중심으로 한 감정적인 집회가 성행하였고, 순복음을 중심으로 기적과 신유를 구하는 집회가 늘었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가 강단을 지배하였다. 성도 스스로 말씀을 읽는 일보다 교회의 활동 신앙생활과 목회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보편적이었다.

이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건주의가 태동하기 전 정통주의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성경으로의 회복, 실천적 신앙의 회복, 개인적 영성의 회복, 소그룹 중심의 교제 회복 등의 과제가 한국교회 앞에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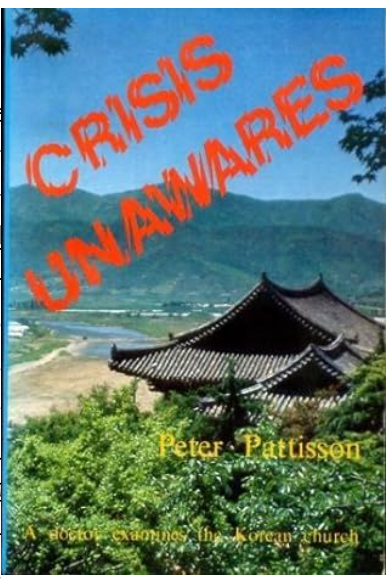
3) 묵상운동의 시작

이럴 때에 성도 개인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묵상운동이 교회 밖 선교단체(para-church)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QT교재를 통한 한국 묵상운동은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UBF는 처음 1961년 미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Biblical Seminary 출신의 Sarah Barry와 한국인 동역자로 이창우님 씨가 광주에서 시작했다. 주로 귀납적 성경공부, 소그룹성경공부와 함께 개인묵상을 강조하였다. 큐티노트 작성과 소감 쓰기 등의 훈련을 엄하게 시켰고, 매주 한 번 자기 그룹에서 일주일 묵상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것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런 성경 공부와 묵상 훈련의 결과로 김세윤, 박득훈 같은 학자들이 나왔고, 이형기(하용조 목사 부인)를 비롯한 초기 <생명의 삶>의 집필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간사들이 IVP의 Search the Scriptures를

가지고 개인 말씀 목상을 해왔다. 그러던 중 1967년 성서유니온 동아시아지구 총무가 한국교회에 성서유니온 개척을 위해 처음 방문했고, 한국에서는 UBF가 그 일을 맡기로 하였다. 1968년 겨울에 처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계간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 한국의 QT 교재 발간의 시작이다. 이는 주로 영국 성서유니온에서 제공하는 Daily Notes를 편역한 책이었다. 이 일에 이창우, 이승장 두 간사가 깊이 관여하였다. 1970년부터는 Daily Notes와 Tyndale Commentary 시리즈를 주로 참고하여 한국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UBF는 학생선교가 우선이고 목상사역은 부차적이었기 때문에 QT 교재 발간을 지속하기 어려워 UBF는 1972년 말레이시아 ANZEA 회의에 이승장 목사를 대표로 보내서 UBF가 맡았던 성서유니온 사역을 포기할 뜻을 전했고, 이후에 배도선, 원의수 등 OMF 선교사들이 그 역할을 이어 받았고, 한국 총무로 윤종하 씨를 선임하였다.²⁾

윤종하 총무를 중심으로 1973년 1월부터 ‘매일성경’이라는 목상교재를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제작하기 시작했다. 배도선(Peter Pettison)은 OMF의 한국사역에 Scripture Union(성서유니온) 사역을 접목한 이유를, 1970년대 당시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기도운동과 부흥회에 치중한 채 성경읽기가 부진하고, 특히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신앙적인 토대가 허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술회하고 있고, 이런 한국교회에 대한 분석은 그의 책 「Crisis unawares: A doctor examines the Korean church」

(OMF Books, 1981)에 잘 드러나 있다. 성서유니온의 <매일성경>은 1987년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이 출간되기 전까지 한국교회에 보급하기 시작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목상교재였다. 특히 각지에 지부를 두고 목상잡지의 보급뿐만 아니라 목상방법을 가르치고, 성경목상에 필요한 성경 각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 등을 강의하고, 이와 관련한 신학 도서들을 선도적으로 출간하여, 목상이 한국교회에 소개되는 일에 선구자적으로 쓰임 받았다. 1980년 London Bible College에서 신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종하 총무는 이후 선교단체와 신학교 등에서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성경목상을 소개했고, 당시에는 생소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전하였으며, 율법주의와 은사주의에 경도된 조국교회를 향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이런 그의 사역이 한편으로는 성경목상 사역의 보급



에 기여했지만, 기존 목회자들에게 큰 반발을 삼으로써 성서유니온 운동이 섹트화, 엘리트화되는 한계를 낳기도 하였다.³⁾ 또한 성서유니온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는 성경목상을 통한 설교준비의 중요성과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는 훗날 온누리교회를 통한 데니스 레인의 강해설교 세미나로 꽃을 피웠는데, 그는 설교를 위해 목회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성경목상을 요구하고 있다.⁴⁾ 당시로서는 대학생들의 선교단체 이외에는 교회 바깥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터부시 되던 분위기에서 성서유니온의 각 지부에서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목상모임과 영어성경읽기 모임 등을 열어서 평신도 목상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위의 내용은 이승장 목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3) 윤종하의 찬사와 비난은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슈페너가 정통주의에 물든 기성 교회로부터 분리주의자와 교회파괴론자라는 비난을 들었던 것과 유사하다.
 4) 아마 거의 모든 설교세미나에서 목회자의 설교 준비 과정에 개인적인 성경목상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3) 목상의 확산

1987년 두란노서원의 <생명의 삶>의 출간과 백만큐티운동본부의 활약, 성서유니온의 <본문매일성경>의 출간과 지부 사역의 활성화는 목상이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의 교회들(남서울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에서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소위 QT를 필수적으로 강조했고,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들이 대형화 되면서 일종의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의 롤 모델이 되는 현상이 생김으로써 그들의 큐티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

어른들을 위한 목상교재에 그치던 큐티교재가 다양한 연령대별로 출간되기 시작한 것도 큐티 인구 확산에 기여하였다. 두란노서원에서는 1989년 4월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이 좋아요>, 1992년 5월 청소년을 위한 <새벽나라(sena)>를 출간하였고, 성서유니온은 이보다 먼저 1980년에 '짐경다리'로 시작하여 1997년 11월에 '어린이매일성경'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87년 청소년을 위한 목상교재 <등잔불>을 만들고 1997년 11월 <청소년매일성경>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 저학년과 고학년 매일성경을 구분하였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큐티아이> 그리고 젊은이를 위한 <매일성경 순>, 노년들을 위한 <시니어매일성경> 등이 계속해서 출간되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생명의 삶은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등으로 번역되고, 매일성경은 영어, 일본어(한국성서유니온의 읽기표를 따라 김남수 선교사를 통한 일본 자체 제작), 중국어, 러시아, 베트남, 크메르,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터키, 키르기스스탄 등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특히 성서유니온선교회가 윤종하 총무와 결별하여 교회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지역에 지부를 두고 교회 친화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전문 사역자(목회자)를 통한 목상 강의와 보급에 힘써 목상 인구를 확산시켰다. 두란노서원의 <생명의 삶>은 본격적으로 큐티책의 잡지화, 고급화,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백만큐티운동본부> 등을 통해 평신도가 주도하여 큐티의 저변을 확대해나갔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매일성경>과 <생명의 삶>을 사용하던 대형교회와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목상잡지를 집필하여 출간하기 시작했고, 출판이 질적·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지구촌교회를 중심으로 한 GT(Ground Tools), 사랑의교회의 <날마다 샘솟는 샘물>, 오륜교회의 <주만나 QT>, 우리들교회의 <QT인>, 고신교단의 <복있는 사람>, IVF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CCC의 <풍삼>, UBF의 <생명의 양식>, 프리셉트의 <목상하는 사람들>, 정현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큐티>, 갈보리교회에서 시작한 <순전한 큐티> 등 다양한 목상잡지가 등장했다. 특히 남서울교회에서 당시 집사로서 <매일성경> 여성 목상모임을 인도하던 김양재 집사는 지나친 문자적인 적용과 평신도로서 교회 밖 모임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교회가 우려하자 직접 <QT선교회>를 만들어 독립하였으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 '우리들교회'를 개척하고 <큐티인>이라는 목상교재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다양한 개인목상과 읽을거리들을 통해 <365일 목상>을 시도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대표적이며, <내 마음의 노래 시편목상 365>, <정오의 샘> 등이 있다. 독일 헤른후트의 <로중>도 한국디아코니아의 번역으로 출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목상 혹은 QT를 하지 않는 성도는 있어도 QT를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만큼 대중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QT인구를 집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판매부수

와 실제 구독자가 차이가 있고, 교단이나 대형교회가 자체 제작하는 부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인 수를 6백만 정도로 추산한다면, 목상인구(목상책을 구입하는 수)는 6, 70만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날마다 목상을 하는 인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의 약 5% 정도만이 목상교재를 통해 개인적으로 성경을 목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벽기도나 유튜브 목상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목상을 하는 성도를 포함하면 10% 정도를 목상인구로 추산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2.2. 한국의 목상 운동의 현주소와 자신학의 흔적

위에서 보듯 한국의 목상운동은 초창기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목상교재를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발간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초창기 그 일에 선교사들이 관여하긴 했지만, 성서유니온의 경우 윤종하, 손봉호, 이만열, 홍치모 등이 거의 집필을 도맡아 함으로써 그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 현실에 맞는 목상교재가 나왔다는 것은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목상교재의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흐릿하게나마 목상의 한국화 혹은 한국식 목상의 윤곽을 그릴 수 있겠다.

1) 성경읽기로서의 목상

대부분의 큐티교재는 책별목상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헤른후트의 <로중>을 번역한 <말씀, 그리고 하루>만이 헤른후트의 일정표를 따르고 있다. 성경읽기에는 크게 다독과 정독이 있는데, 대부분의 큐티교재는 '정독'으로서의 성경읽기 방식으로 QT를 채택하고 있으며, 본문에 따라 다독을 위한 성경읽기 본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깊이 읽기와 넓게 읽기를 병행하는 것인데, 이를 모두 충분히 해내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정독으로서의 목상과 다독으로서의 성경읽기를 병행하는 독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목상교재-IVP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로중>을 제외하고-가 친절한 책별 개관과 본문설명과 본문의 배경 해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도움을 받아 성경의 숲만이 아니라 나무를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필자는 5년여 유학생생활 중에 목상교재를 사용하여 날마다 본문을 목상하는 사례를 주위의 신학생들이나 영국의 교회들에서 거의 보지 못한 것-다독을 하는 교수나 친구들은 간혹 보았다-을 생각하면, 목상교재를 통한 정독 혹은 속독 성경읽기는 우리만의 매우 독특한 문화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경공부로서의 목상

하지만 국내의 목상교재는 '연구' 혹은 '공부'와 '목상'의 경계가 모호하다.⁵⁾ 목상을 하도록 요청하긴 하지만 책별로 본문이 정해지다 보니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뜻을 해석하기에는 간략한 본문해설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본문에서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나 세계관적인 전망을 이끌어내기란 성도 개인의 수준에서는 여의치 않다. 본문의 뜻이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으니 깊은 목상과 적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책별로 목상을 하는 거의 모든 목상교재가 갖고 있는 딜레마다.

5) 가장 성경연구의 성격이 강한 목상교재가 <날마다 샘솟는 샘물>로 보인다. 이 책은 아예 내용관찰, 연구와 목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3) 개인의 묵상과 개인적인 적용으로서의 묵상

한국의 묵상운동의 보급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들의 책에서 성도 모두의 책으로 바꾼 데 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각자 자기 수준에서 읽고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한 것이다. 이는 묵상운동을 시작하고 확산시킨 주역이 평신도를 주축으로 한 대학생 선교단체나 평신도 중심의 성서유니온, 선교단체 출신의 하용조 목사가 시작한 <두란노>라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성경의 큰 이야기(Grand Story)를 특정 시대와 장소에 사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상관있는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다만 성경의 적용이 개인적인(personal)은 좋지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individualistic) 한계는 명백하다. 성경의 관심보다는 개인의 필요나 관심을 앞세워 지나치게 자의적인 적용을 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 하는 증거본문으로 사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4) '성경'묵상에 머무는 묵상

성경문맹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경' 묵상에 대한 강조는 늘 긍정적이다. 정독 혹은 속독으로서의 성경묵상과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에 크게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만'을 묵상하는 데 머무는 것은 '성경주의'(Biblicism)의 위험을 낳는다. 묵상의 대상은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와 나 자신을 포함한다. 그것이 성경묵상과 별개가 아니다. 성경묵상을 위한 성경해석은 해석학적 순환 혹은 간섭을 통해 본문과 해석자와 세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개인주의적 묵상이 결합되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이념에 경도되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위험이 커진다. 성서유니온 안에 40년 이상 묵상을 한 시니어들 가운데 소위 태극기 부대에 열광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5) 예화와 간증에 더 주목하는 묵상

큐티교재가 잡지화 되면서 성경본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예화나 간증 같은 읽을거리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생명의 삶>은 최근까지 본문해설은 실지 않고 묵상본문과 빈 노트와 예화만 제공하였다. 따라서 어려운 성경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예화묵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간증이 종종 실리는데, 생생한 사례라서 감동도 있고 또 성경묵상을 지속하도록 돕는 동기부여도 된다. 동시에 지나치게 극적이고 자극적인 간증들은 별 일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이다. 특히 우리들교회의 <큐티인>은 더욱 상황이 심각한데, 상당히 많은 간증이 죄로부터 돌이킨 구체적인 사례들로 채워지는데, 그 사례들 역시 실명이고 동시에 낯부끄러운 불륜이나 사기 등의 행각들이 많아서 외부인으로서는 당황스럽다. 마치 묵상의 목적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모든 숨은 죄들을 적발하고 고백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사에 주목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실용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극단적인 사례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그런 극적인 간증이 없으면 묵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착각까지 줄 수 있다. 간증 혹은 이야기는 힘이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자기과시의 한 방편일 뿐이다.

6) 교회 주도형 묵상

한국교회의 묵상은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재를 선택하고 스스로 개인 경건을 위해 행

하는 신앙의 한 의식(ritual)이나 가정의 한 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여 단체로 구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대개 큐티교재는 목회자에게 새벽기도 인도용으로 쓰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QT 목회를 하는 교회는 수요일과 주일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고, 구역이나 셀모임을 QT 교재에 수록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이용하고, 가정예배 가이드를 따라 가정예배를 권하기도 한다. 학생선교단체에서 발간된 교재를 제외하고는 목상을 통한 토털 목회를 염두에 두고 목상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상교재는 주일학교 운영을 염두에 두고, 청년이나 실버 세대를 독자대상으로 한 목상 교재 역시 목회의 수월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교회 주도의 목상이 주도적인 흐름이다 보니 교재의 판매 부수에 비해 실제 목상을 하고 있는 성도의 수는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7) 소그룹 나눔으로 이어지는 목상

한국교회의 목상이 교회주도의 목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목상은 소그룹 나눔으로 이어진다. 선교단체에서도 목상을 보급하거나 훈련할 때 소그룹 나눔을 거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권한다. 이는 목회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로 성경해석의 권한을 양도하였지만, 목상 나눔을 통해 각자의 해석이나 적용을 점검하고, 또 타인의 나눔을 통해 자신의 목상을 풍성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그룹 나눔은 지체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여 목상이 단지 지적이나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되고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깊은 본문 해석을 거치지 않는 목상 끝에 나눔 모임을 했을 때, 잘 준비된 인도자가 없다면 성경 목상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변잡기적인 일상을 나누는 데 그치게 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당면한 필요들 혹은 결정들을 매주일 반복적으로 나눌 뿐, 말씀에 비추어 그것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

2.3. 한국성서유니온의 목상운동의 자신학화적 기여

위의 한국의 목상운동의 현주소에서 살폈듯이, 목상의 시작과 확산과 정착에 한국성서유니온의 기여는 단연 돋보인다. 다른 단체들에게-심지어 두란노마저도-목상은 부차적인 사역이지만, 성서유니온에게는 본연의 국제성서유니온의 과제-어린이 청소년 성경읽기 사역-를 벗어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목상을 통한 장년들의 성경읽기를 가장 중점 사역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성경번역선교회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성서공회가 성서를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고, 성서유니온이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목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가장 오래된 단체이고 가장 전문적으로 목상 사역을 시행한 단체로서 성서유니온의 목상 사역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자신학적 기여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시하고자 한다. 단 SU 사역의 대부분의 특징은 윤종하 총무 사역의 특징과 연결된다. 성서유니온의 초기 20년 사역은 윤종하 총무의 통찰과 역량에 크게 빛을 지고 있으며, 향후 SU 사역의 대부분의 방향과 컨텐츠가 이 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한 윤종하 총무에 대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한국인에 의한 목상 교재

상술한 것처럼 1973년 <매일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목상교재를 편찬할 때부터 영국의 Daily Note와 상관없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집필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윤종하 초대 총무는 비록 국내에서 신학을 하거나 안수를 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추대로 3회나 역임한 윤봉기 목사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하였고, 영어에 능통

하고(서울대에서 영문학 전공), 사업을 경험하여 경영 능력을 갖추었으며, SU라는 국제단체의 일원으로서 서적을 통해 새로운 신학의 흐름을 접할 수 있었고, 1980년에는 London Bible College에서 수학하여 막스 터너(Max Turner)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일찍부터 목회자에 준하는 소양을 갖추었다. 윤종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준비된 SU 위원들이 집필하고 제작한 목상교재 <매일성경>은 배도선 선교사가 심각하게 여긴 한국교회의 상황, 즉 부흥회 중심의 피상적인 은사주의와 물량주의와 기복주의를 고려하여 신학적으로 응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만드는 목상교재였다. 독특한 한국인 방식의 목상방법론을 개발한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 ‘한국교회에 의한’ ‘한국교회를 위한’ 목상교재의 편찬 자체가 이미 자신화의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다.

2) 성경읽기에서 성경목상으로-Two-Question Method

성서유니온의 <매일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해석학의 원리에 따른 석의를 바탕으로 하되, 본문에 낯선 독자들이 본문을 대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관찰하게 함으로써 목상을 돕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이다.⁶⁾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인물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구속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찰을 하게 하였다. 또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메마른 교조주의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인간 일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질문의 배후에 있는 의도는 물론이고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에 다가가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본문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이 제한된 시간에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석의하고 메시지를 제시한 후 적용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질문이 나중에는 더 깊은 목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 성경해석에 기초한 석의를 익히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풍성한 목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두 질문을 통한 목상은 늘 본문의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나 교훈을 파편적으로 찾게 되는 한계가 있다. 본문을 목상하지만,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해당 본문과 성경 전체와의 신학적인 연속성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깊이는 더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의 나온 목상교재들 가운데는 매번 동일한 <매일성경>의 두 가지 질문 대신에 석의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질문들을 본문에 따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⁷⁾

3) 성경해석에서 삶의 적용으로-삶의 실천과 하나님의 인도

성서유니온은 국제적으로 <SU성경해석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비평학의 장점을 수용하고

6)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말씀을 읽으며 외닿는 단어나 구절,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 느낌,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등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7) 대표적으로 CCC에서 출간하는 <풍삼>이 본문에 따라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안을 질문 형식으로 세 가지 묻고 있으며, 핵심 메시지에 대한 한 가지 적용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목상하는 사람들> 역시 본문관찰과 깊은 적용으로 나누고, 본문 관찰에 필요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있는 사람> 역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모던적 해석의 유익까지 다 아우른 탄탄하고 유연한 성경해석학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여 각 나라들의 성서유니온과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성서유니온은 해석을 통해 교훈적인 메시지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개인적(personal), 실제적(practical), 확인 가능한(provable) 적용을 하도록 권함으로써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목회자로부터 교리적인 메시지와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데 그쳤던 70년대 이전 강단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원리를 얻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혹은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단지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에 열중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주었다. 특히 성서유니온의 '성경묵상과 하나님의 인도' 강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주실 수 있는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를 실제 경험한 성도들이 이후 말씀묵상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되며, 이런 방법론을 익힌 김양재 목사의 묵상 간증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일성경 전권이 튀르키예 말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멀리 있는 신인 알라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던 무슬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묵상과 하나님의 인도를 접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영향을 미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는 간증을 선교사로부터 들은 바 있다.

물론 문자적인 적용이나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은 매우 크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 단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소통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성서유니온 묵상의 큰 기여다. 실제로 묵상 간증을 모은 책 <큐티로 날다>(2007, 성서유니온선교회)를 보면, 믿기지 않을 만큼 매일성경 묵상을 통해 삶을 회복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다. 필자도 40년 가까이 매일성경 묵상을 하면서, 당일 본문을 통해 거의 문자 그대로 궁금한 것에 대답해주시고, 해야 할 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정하게 하신 경우가 허다하다. 유학을 포기한 채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식당을 시작한 부모님을 돕고 있던 때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는 본문을 묵상하던 날 생면부지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유학에 필요한 현금을 받았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4) 묵상의 신학화-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구원론과 탈종교화

성서유니온의 묵상은 단지 평면적인 성경읽기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하여 세계관적 성경읽기를 추구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전적으로 윤종하 총무가 기초를 닦고 필자를 비롯한 매일성경 담당자들이 그 정신을 잘 계승한 덕분이다. 특히 윤종하의 <성경묵상과 우리의 구원>(2002, 모리아)이라는 책이 말해주듯이,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칭의' 구원론에 익숙한 한국 교회에게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오해를 받았고,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없이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에만 여념이 없는 삶을 경계하고, 안식일, 십일조 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문자적으로는 폐지되었다고 가르치자, 율법폐기론자들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안식일과 십일조의 문자적 폐지를 주장하자 한국교회는 가장 크게 반발하였고,⁹⁾ 결국 윤종하 총무가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후에 윤종하의 제자

8) 경건주의가 중생론에서 '성화'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그가 행위구원론자라는 비난에 맞서 자신의 완전성화론은 루터의 이신칭의의 기르침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하다.

양용의의 박사 논문을 통해 안식일의 완성에 관한 윤중하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레서원, 2011), 그가 초대 원장을 역임하며 5년 동안 근무했던 에스라성경연구원의 학자들을 통해서 불온하게 여겨졌던 그의 신학들이 좀더 다듬어지면서 성경묵상과 하나님 나라, 성경묵상과 구원 등의 주제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성서유니온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묵상교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 큐티>가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본문이 말하는 만큼, 본문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는 성서유니온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큐티 교재보다 더 안전하고 튼실하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 나라 큐티>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광장성을 강조하다 보면, 본문이 말하는 개인적 관심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한 성도 개인이 지속적으로 묵상의 삶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은 늘 활동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된다.

5) 성령의 해석과 소그룹 나눔

비록 성도들의 성경해석이 잘못될 수 있고, 자의적인 적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유니온이 개인성경묵상을 강조한 이유는 각자의 수준에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었고, 성경은 원래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경건주의 전통을 따른 헤른후트의 성경묵상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일성경> 교재를 편찬하였는데, 2000년 이후 매일성경은 적용보다는 본문 해석에 더 주안점을 둔 본문해설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성도들의 본문 이해에 더 큰 도움을 주었으며, 2012년부터 <묵상과 설교>를 발간하여 목회자나 인도자들에게 좀더 깊은 석의와 설교 가이드와 유용한 기사들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묵상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열어주었다. 그밖에 묵상에 도움이 될 스터디 가이드나 책별 참고도서를 출판하여 진전된 묵상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성서유니온의 묵상나눔(QT sharing)은 교회 안팎에서 형성되어 다양한 묵상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교회 바깥에서 선교사들이나 지부 총무들이나 평신도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묵상모임을 갖다가 점차 교회 안의 묵상모임이 증가하였다. 묵상을 하는 교회에서는 구역예배를 묵상나눔 모임으로 전환하였으며, 심방도 당일 묵상 본문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소그룹 나눔은 공동체적 성경읽기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성도의 각자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이 인상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공동체가 서로 나눔으로써 개인적으로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로 조율되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해석학과 공동체 해석학은 성서유니온이 한국교회에 제공한 귀한 유산이다.

4. 묵상 운동의 자신화 방향 제안

이제 한국의 묵상 운동의 현주소와 성서유니온 묵상 운동의 기여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자신화의 성격을 띤 묵상운동의 미래에 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들 각각마다 큰 확대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인데, 첫째는 한국적 해석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통전적, 전인적, 상호적 묵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몸, 맘, 삶의 묵

9) 윤중하 총무가 주일성수와 십일조 문제를 거론했을 때 성서유니온은 가장 큰 반대에 직면했으며, 그가 속성전가적 원죄론을 거부했을 때 강한 사임 압력을 받았다.

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셋째, 자신화한 목상의 대상과 목표에 대해서 이미 공유하는 합의를 재확인하고 싶다.

4.1. 파편적, 원자적, 해체적 서구 해석학에 대한 대안인 대화적 성경해석학

서구의 성경해석학은 하나님 저자(신학)와 인간 저자, 독자, 독자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해석자 등 해석에 가담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론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아래의 표와 같이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랐으며, 그 결과 본문의 의미는 달라졌다. 어느 방법론 하나 버릴 것이 없지만, 어느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한 본문을 두고 다양한 의미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더 압도적으로 옳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점을 달리 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미들 가운데 해석자가 선 자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해석자의 전제에 따라서 해석자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성경해석의 주요 흐름

- 1) 신학적 해석-교부...교리적 논쟁의 시기...교리 강조
- 2) 철학적 해석-중세...스콜라철학...교회의 권위 강조
- 3) 역사적 해석-근대...텍스트 뒤의 세계...저자 강조
- 4) 문학적 해석-현대...텍스트 안의 세계...본문 강조
- 5) 이데올로기 해석-현대...텍스트 앞의 세계...독자 강조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해석자의 전제(선이해)와 그가 선 자리에 대한 강조는 한국적 해석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성경목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보다 대부분 비전문가인 해석자(목상하는 사람)의 필요와 수준과 선이해의 정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한국적 성경해석학이 충분히 정립되기 전에도 이미 성경목상은 한국적 해석학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의 과학적인 석의작업보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목상작업이 자신화하는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신학과 인문학과 역사와 문학과 저자 자신의 전제가 해석 혹은 목상의 과정에서 서로 간섭하고 상관하도록 최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노력과 개인의 경험, 그리고 신학 전통에 대한 습득 등을 통해 위의 성경해석 방법론들 간의 대화가 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 가설에 의존하거나 원자적이고 파편적인 분석으로 치우치는 것, 혹은 텍스트의 의미 자체를 해체시키는 극단적인 방법론에 경도되지 않고, 각 방법론이 주는 장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환은 최근에 나온 책 <Re:성경을 읽다>(학영, 2023)에서 '의사소통모델'을 제시하는데, 내가 제안하는 '대화적 모델'과 거의 흡사하다. 즉 해석자 개인의 상황과 수준과 필요에 따라 어느 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고, 한 해석자에 의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경해석 방법론이 구사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 사이를 조율해주고 교정해주고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해석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4.2. 대안적인 목상 제안: <몸, 맘, 삶의 목상>

-통전적, 전인적, 상호적 목상

결국 목상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의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성경해석학의 원리에 따른 해석과 적용으로 목상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그 말씀은 창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은 단지 연구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목상을 위해 올바른 해석은 필수적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성경 목상은 우리의 몸과 맘과 삶 전체를 모두 상대해야 한다. 대략적으로 다음의 18가지를 간략하게 제안한다.

1) 세계관적 목상

목상하는 자의 선이해 인정한다. 한국적인 상황과 개인의 상황에 따른 한국인으로서의 전제를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전체 세계관을 통해 자신의 선이해(세계관)를 평가하고 교정하고 조율해나가고 융합시켜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목상이라고 부른다. 결국 목상은 세계관적 만남과 충돌 혹은 화해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시대의 질문과 도전과 공세에 맞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에 비추어 대답하고(만남) 대면하고(개화) 대결하는(저항) 과정에서 형성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들에게 경청하고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견문(見聞)의 태도에서 형성된다.

2) 마음의 목상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목상은 순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본문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만큼이나 궁극의 저자인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목상의 도구다. 목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해석학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3) 환대의 목상

목상의 다른 목적은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향한 공감과 통감이 목상의 또 다른 도구다. 시대와 역사를 맥락으로 목상하고, 그 세상을 '위하여' 목상하고 '향하여' 목상하고 '의하여' 목상한다.

4) 실존적 목상

목상하는 자신의 현 상황과 현재의 필요와 현재의 수준과 현재의 영적 상태와 현재의 감정과 현재의 깨달음을 존중한다. 그것은 때로 텍스트의 맥락을 뛰어넘어 문자적인 적용을 허용한다. 목상하는 자가 처한 바로 그 형편, 그의 마음 상태 등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목상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5) 각성의 목상

목상의 다른 목표를 '깨우침'과 '자각'에 둔다. 지식 습득이 아니라 감각이 열리고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험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다. 이는 목상이 행동(doing)보다 존재(being)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삶의 목상

성경목상은 삶에 대한 목상이면서 동시에 존재에서 삶으로, 각성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목상이다. 일상의 노동을 통해서 삶 속에 구현되는 생명의 원리를 체득하고, 그 생명이 진작되는 방향으로 목상한다.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자유 같은 가치가 실현되게 하여 해방과 안식을 만들고 세상에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삶의 목상이다.

7) 몸의 목상

온몸의 목상을 요구한다. 의식과 무의식,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모두 포함한 목상이다. 지속가능한 목상을 위해서는 습관과 예전(ritual)이 중요하다. 내재화된 진리를 통한 즉흥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8) 성찰의 목상

묵상하는 자신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는 '메타 인지'를 강조한다. 의심의 해석학이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기 객관화와 자기 상대화를 요구한다.

9) 연대의 묵상

공동체적 묵상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묵상의 맥락이며, 공동체와 함께 묵상한다. 공동체의 필요가 묵상의 전제가 된다. 묵상의 나눔을 통해서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

10) 여정의 묵상

묵상은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과정이다. 묵상의 대상이 텍스트만이 아니라 삶과 사람과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고, 묵상은 그 창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도구이다.

11) 관용의 묵상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수용하고 또 세상을 사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포스트모던 사회가 준 다양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성과 합리주의를 금과옥조로 여긴 모더니즘의 오만함과 진리를 해체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책임함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배제와 배타로 나아가지 않고 타자를 인정하는 톨레랑스의 태도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보편성과 포괄성을 추구하는 길에 대해 고민한다. 보편 신학이나 메타신학을 특정하지 말고 끊임없는 신학화의 여정의 결과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해나가야 한다.

12) 관계의 묵상

이는 상상력의 묵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공시적 상상력과 통시적 상상력을 결합한다. 수평적으로 동시대 사람들과 시간적으로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으로 묵상한다. 묵상은 '관계 형성'의 과정이다. 관계 형성을 위해 내가 성육화하는 과정이며(자기중심주의적 태도를 피해), 탈신화화하는 과정이며(혼합주의적 태도를 피해), 역사화하는 과정이며(가현주의적 태도를 피해), 변방화하는 과정이다(제국주의적 태도를 피해).

13) 이성의 묵상

상식과 합리성에 기대어 텍스트에 대해 기본적인 소통 구조를 존중한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방식과 지나치게 객관적인 방식에 모두 주의한다.

14) 경험의 묵상

인생의 경험은 중요한 묵상의 대상이기도 하고 묵상의 도구이기도 하다. 각자의 고유한 경험한 것들을 잘 묵상하고 타인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된다.

15) 신비의 묵상

상식과 합리와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묵상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설명하실 여지를 남겨둔다. 초자연적인 주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더 길게 시간축을 확장시키고, 더 넓게 공간축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한다. 자신학화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학이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신학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수용해가는 여정으로서의 신학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해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 정의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장악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의를 상대화하도록 이상파괴 작업을 진행하신다. 결국 자신학화는 늘 신비의 여지가 있는 신학이어야 한다(신비주의의 오류 경계). 이상파괴를 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실존의 자리, 삶의 자리, 존재의 자리, 일상의 자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것을 잘 수용하여 인과율을 깨뜨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자신학'화'(化)의 과정일 것이다.

16) 고난(십자가)의 묵상

죄성과 썩어가는 죄악의 역사와 구조화된 불의와 그로 인한 고난을 기본 값으로 갖고서 사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실존을 전제하고 묵상해야 한다. 이것이 위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포함한 생명을 가진 모든 생태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며,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준다. 눈물과 연민을 사유의 도구로 삼는 묵상이다.

17) 대화의 묵상

모든 묵상은 대화의 과정이다. 자신학화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이며 새로운 이해이며,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과 지지와 도전과 검증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이다. 이 공동체 안에는 동시대의 교회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교회의 유산과의 대화도 포함한다. ‘담’의 속성과 ‘물’의 속성 모두를 담지한 채 내 것(복음, 담)을 부여잡은 채 타인에 대한 무지를 전제하면서 성령께서 섞으실 수 있도록(물) 맡기는 일이다.

18) 성육신적 묵상

필연적으로 다원화된 세상에서 묵상 혹은 자신학화는 지켜야 할 본질과 본질에 대한 성찰과 본질의 심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문화에 적실한 옷을 입어서 그 시대, 문화, 사람과 소통하여 그 시대가 끊임없이 개인과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19) 성경의 묵상

무엇보다 묵상의 시작은 성경의 묵상이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성경을 구현하는 묵상이어야 한다. 자신학화는 자기 신학화가 아니다. 자신학화의 경계는 계시다. 계시가 갖고 있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담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을 대할 때의 내재성의 타락인 성경주의와 초월성의 타락인 영해의 오류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이것은 대화로서의 성경해석과 의심의 해석학과 신비의 해석학을 추구한다.

4.3. 자신학화적 묵상의 성격과 목표

정리하면, 이제 묵상은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를 묵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텍스트를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묵상의 대상인 컨텍스트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세상의 역사와 묵상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다. 이제 우리는 마치 성령만을 의지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과 공동체를 통해서 묵상을 해나가야 안전하고 균형 잡힌 묵상이 가능하다. 묵상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묵상은 단지 연구나 공부만 아니다. 율법주의적 종교 활동의 일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한 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모두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제시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비’와 ‘무지’의 구름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묵상은 그분의 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듯이 보이는 역설(paradox)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 이웃의 관계, 고난 가득한 상황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 주고,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줌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우리의 묵상은 가장 우리의 형편과 리듬에 어울리는 묵상 방식, 장소, 기구, 교재 등 적

합한 예전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목상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목상은 순종과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목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예수화'(Jesusification)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는 과정이 목상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이며, 성부의 창조의 수종자가 되는 일이다. 결국 목상 혹은 자신학화는 존재화 과정이며, 자신의 사유의 방식을 성찰하여 시대 및 복음과 소통할 수 있는 논리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그것을 통해 실천적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실현에 참여하는 일이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분을 배우는 사람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사람이 되고, 그분을 위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다. 목상은 그분처럼 되어 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목상(을 통한 자신학화)이 없는 제자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없다. 목상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학화하여 자신만의 예수전(典)을 쓰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맺도록 디자인하고, 그들의 수준과 처지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다리는 일일 것이다.

부록:

윤종하 장로의 삶: 성경묵상, 하나님 나라 통치 속으로

말씀이 들렸다

지금도 생생하다. 무심한 나를 깨우던 테이프 너머의 명징한 그분의 음성이. 그 날 간간히 몇 마디를 섞어서 단지 성경을 찬찬히 읽어주었을 뿐인데 전혀 낯설게 그 말씀이 들려왔다.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속뜻이 만져지면서 마음의 안개가 걷혔다. 속을 내리누르던 것이 내려가고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그러는지도 모르는 그 까까머리 중년 남성은 다소 건조하리만치 태연하게 자기 할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시도 과장도 없고, 수사나 수식도 없다. 그런 거 없어도 해야 할 말이 많다는 듯, 드러낼 말이 너무 많다는 듯,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매우 빠르게,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갔다. 오직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서 그 관계를 주변 문맥을 따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그의 신학적 입장이나 배경은 어떠한지, 심지어 그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서 많은 신학공부를 하였는지 전혀 궁금해 할 틈이 없었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고 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그는 오직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계시해놓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주목하는 것처럼 보였고, 적어도 나에게는 그의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강한 자극이나 선동이나 도전적인 요구가 없었는데도 내 가슴은 뜨거워졌고 머잖아 눈물이 쏟아졌다. 카세트의 ‘멈춤’을 누르고서는 곧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오늘 여기서 주의 다스림을 구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날 나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경험했고,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성경의 말씀(히 4:12)을 실감하였다. “백수의 왕 사자의 용맹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사자를 우리 밖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던 브랜차드의 말대로, 왜 성경이 역사적 정보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빛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몸소 배우는 사건이었다. 군대에서(1991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분을 직접 뵈옵기까지는 2년이 더 흘렀다.

말씀이 삶이 된 사람, 윤종하

나에게 윤종하는 총무님, 원장님, 장로님으로 불리던 분이였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 에스라성경연구원에서,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나는 그분을 뵈었고 같이 했고 부지런히 배웠다.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썼다. 질문이 많았고 탄지도 자주 걸었고 끝내 동의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지만, 여태 가장 힘차게 갈채를 보내고 답으려고 애쓴 제자 중 하나일 것이다. ‘말씀의 사람’을 떠올릴 때 나에게는 두 사람이 생각난다. 우리에게 『성서조선』을 남겨 주신 김교신 선생과 『매일성경』을 남겨 주신 윤종하 총무님이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알아듣기 쉬웠고 다 들은 다음에는 절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像)이 생겼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려고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제시했고, 그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기성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해줌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시원하고 통쾌하게 여기든지 했다. 그간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과 단호하게 결별하지 않으면 총무님과는 친구조차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듣고 배우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던 지식에 취하여 거짓 안전감을 즐기던 이들을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냉수 같

은 말씀이었다. 강의 후에 강한 반발과 비난, 무례한 항의와 거친 질문이 늘 뒤따랐던 것은 그래서였다. 하지만 총무님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초연하게 대답해주었고 응수해주었다.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적어도 자신이 아는 한에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였고, 공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리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성경이 실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주면서 대답하는 식이었다. 그것은 또한 신학적 논리이기보다는 삶의 논리에 더 가까웠다. 즉 성경이 신학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성경 사용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의 침착함과 대범함, 그리고 단호함과 자상함의 비결을 그분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배울 수 있었다. 적어도 그를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말씀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늘 가르치기를 힘쓰는 사람이란 의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분에게는 심지어 그게 너무 쉬워보였다. 말씀이 한 개인의 마음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할지를 잘 아는 분이였다. 나에게서는 그냥 무심히 스쳐지나가는 말씀이 그분에게는 오래 머물러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고 있었다. 그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눠주시는 말씀이나 강의 때 듣는 말씀, 그리고 설교 중에 나눠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때로는 심령에 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럽게 아픈 데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성경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들려왔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도록 잘 말기는 것을 보았다. 그분에게 말씀은 더는 연구의 대상만도 아니고, 쌓고 모으는 정보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생생함 때문에 더욱 내 눈에 윤종하 총무님은 그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이였다. 내가 모르는 크나큰 결단도 있었겠지만, 대개는 아주 소소한 일상의 결정들까지도 말씀묵상을 거친 후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물음이 생활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분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과 그가 쓰는 언어들에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생활친화적이었던 것은 바로 오래 지속한 말씀묵상과 실천의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윤종하 총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주의를 기울인 해석을 통해서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게 실천할 때 깨달아진다고 늘 강조하였다. 자신부터 소박하게, 단출하게, 정갈하게 사시면서 그것을 실천하신 분으로 나는 기억한다. 여기 그가 남긴 여러 공헌 가운데 특히 성경묵상과 관련하여 끼친 영향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성경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다

윤종하 총무님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묵상”을 이 땅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일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성경번역선교회”가 한다면, 성경을 신자들의 손에 들려주는 일은 “성서공회”가 맡고, 그 성경을 실제 성도 개인이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도록 돕는 일은 “성서유니온”이 감당한다는 말이 있다. OMF 선교사님들에 의해 성서유니온선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1970년대 초는 교회마다 부흥회 열기가 뜨거웠고, 이는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기독교버전이 되어 “예수 믿고 복받자”는 말씀이 널리 받아들여지던 때였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겼고, 성서유니온의 “성경읽기사역”을 통해 다시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촉구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감정적인 위무를 전해주는 예배나 피안적인 구원(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강조하는 강단이 회복되기

를 기대했다. 그나마 열정이 있는 교회에서는 하루에 성경 석장 읽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학생선교단체들에서 성경공부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는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럴 때에 성서유니온과 윤종하 총무는 영국의 “생명의 양식”(Daily Bread)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1년만에 자체로 집필하여 <매일성경>을 출간하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매우 선구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급진적인 운동이었다. 이는 성경은 성직자인 훈련 받은 목사들만 다룰 수 있다고 여겨지고, 또 그 목사의 해석이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던 한국교회 상황에서, 성경을 목사나 성도의 “개인 묵상”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제안이고, 기성교회로부터 환영은커녕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에 족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듯 소개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룹을 지어 공부하고, 그래서 점점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내야 했다. 윤종하 총무에 의해 이제 성경은 목사들에 의해 설교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든 목회자든 성경 앞에서 똑같이 조아려서 공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개인적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재조명된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성경묵상이 개인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오해와 고난을 받기도 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행위구원론으로 비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오해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없는, 즉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없기 때문이다. 윤종하 총무는 그만큼 성도 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강조한 사람이었다. 윤종하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매일성경>과 <묵상>인 이유가 이것이다. 심지어 그는 모든 신학공부, 신앙생활, 독서, 체험 등이 바로 이 <묵상>에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더해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2. 성경묵상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산다는 주제는 교회가 있는 동안은 늘 강조된 메시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일은 드물다. 강단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강단 아래서는 “아멘. 주님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할 것인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가, 와 같은 큰 일 앞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분별인 것으로 생각했다. 또 그것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더 잘 분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성경을 더 잘 아는 목회자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분별하여 지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했다. 하지만 윤종하 총무의 기여는 그가 말씀묵상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의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고, 또 실제적인 예들을 손에 잡히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에게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큰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주기도 하는 말씀이었다. 때로는 오늘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날마다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묵상이 깊

어지다 보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가령, 에스라성경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보낸 후 사임하려고 하였지만, 이사회가 거둬주는 연임 부탁을 받던 중 사무엘상을 목상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수락한 것처럼, 자신도 2대 원장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윤총무님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고, 목상하는 성경본문의 문맥을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을 주의 깊게 목상하여 적용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 역시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총무님은 나에게 “실수를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목상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다. 주의 깊지 못한 일부의 적용사례들 때문에 목상을 권한 윤총무님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또 너무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하다 보니 아전인수식 적용의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말씀이 자기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마음이나 삶의 사례들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낯선 주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의 강조는 필요했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의 삶과 시대를 분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도록 맡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장로교 전통이 강한 조국교회에서는 초월의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근엄한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는데, 말씀목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 혹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강조는 내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새롭게 창조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잘 보여준 것은 윤총무 총무의 적잖은 기여라고 생각한다.

3. 성경목상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의 성경목상은 탄탄한 주해와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으로 정의한 것은 주목해야 할 선구적인 주장이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 이제 신학과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는 그의 주장이 새롭게 들리지 않지만,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왕의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임한 나라라는 그의 가르침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낯설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영국의 런던바이블칼리지에서 각 1년씩 수학한 경험이 그의 신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총무님은 간혹 필자를 가르치기도 했던 막스 터너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경험을 나누기도 하셨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서인지 조금 일찍 원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성서유니온이라는 국제단체의 총무로 있으면서 해외의 사역자들과 교분을 나누고 신학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 그의 신학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에 신학계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평신도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니, 그것을 배운 성도들과 목사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당연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이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영역은 단연 “구원”이다. 그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개인의 속죄에 미친 영향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측면에서 구원을 정의했고, 그것을 또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윤총무 총무는 이제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고 흑암의 권

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성경을 따라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믿음”이나 “회개”는 철저히 정치적인 개념이 된다. 이전에 충성하던 대상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면 새로운 주권자, 새로운 세계관을 향해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게 된다. 속죄의 측면에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십자가는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이지만, 이제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윤종하 총무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한 묵상은 날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를 중요한 질문 혹은 도전으로 제시하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많이 강조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강조인 것이, 당시 교회의 큰 문제는 너무 구원의 첫 시점, 즉 영접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 받은 성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강조가 약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성도답게 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상급”이나 “축복”과 관련되었을 뿐 “하나님의 통치에의 복종”이나 “구원”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하지만 윤종하 총무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의 측면을 말하면서, 성경묵상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윤리적인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강한 도전이 구원의 확실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마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열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이 말한다고 하여 “행위구원론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의 가르침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한 치우친 비판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신학과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의 논의는 필연 그의 “성경묵상”의 삶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이 “성경”이고, 따라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왕적 통치 아래 있을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성경묵상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책을 펴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있고 적실한 가르침이라고 하겠다.

에스라성경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었던 습관이 바로 사역자들이 이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필경 그 말씀을 권력으로 삼아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성도들과 차별된 대우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즉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지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진정한 교회 갱신은 목회자 자신이 복음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그는 믿었다.

4. 성경묵상과 탈종교생활

윤총하 총무님이 한국교회로부터 곤경을 당한 것은 성경묵상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성경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율법으로서의 주일의 폐지와 십일조 폐지를 거론하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에게는 실정법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으며, 더는 문자적인 준수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율법폐기론처럼 들리겠지만, 그는 율법의 완성일 뿐 율법의 폐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폐지”는 그 역할이 만료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폐기”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니 완성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 윤총하 총무에게 율법은 폐지와 완성의 대상이지 폐기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임의로 학자들이 율법을 의식법, 정결법, 도덕법으로 나눠서 의식법과 정결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유지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율법은 하나로 간주되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범주 안에 당연히 안식일과 십일조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시대가 옛 언약의 시대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로 보내야 하고, 십분의 일만이 아니라 십분의 십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제 성령의 시대이니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민감하여 사는 삶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이 당장에 주일 출석을 등한히 하고 현금생활에 소홀한 성도들을 낳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위협적인 가르침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여 성경의 가르침마저 위협 받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그는 신학적인 선구자였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종교생활과 율법주의 찌든 조국교회를 본 것이다. 성직주의와 교권주의에 포박된 교회를 형편을 본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일과 주중의 삶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본 것이다. 마음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없이 늘 상벌에 길들여진 성도들을 본 것이다. 목사를 영매로 간주하는 무당종교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할 때 그런 껍데기를 벗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이 강제하는 삶의 수준보다 성령이 역사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정작 성도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자신은 가장 보수교단 가운데 하나인 고신측에서 자라고 활동하셨다. 총회장을 3번이나 추대되어 역임한 윤봉기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경건훈련을 받아서인지 몸에 밴 신앙으로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았다. 윤봉기 목사님은 아들이 폐병을 앓고 있는 중에도 아들이 참석할 때까지 새벽예배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윤총무님이 50대 중반 쯤 되었을 때로 기억한다. 윤총무님께 “그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라고 여쭙었더니 “안 세워서 모르겠습니다. 한 300독은 했지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나이 드셔서도 안경을 안 쓰실 만큼 눈이 좋으셨는데, 항상 포켓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읽고 계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진리가 주는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임을 윤총무님은 몸소 보여주셨다.

5. 성경묵상과 성령과 공동체를 통한 성경해석

그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한 묵상이론은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유산인 만인제사장설을 따라서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목회자나 전문가의 손에 들려졌던 성경을 성도의 손에 쥐어 주었고, 전문가가 해준 성경해석에만 의존하다가 이제 능동적으로 성도들이 직접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는 성경해석을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특정 교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들리도록 허용하는 소위 성경해석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한 노래를 여러 가수가 작곡자의 기본적인 의도를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럼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독자중심적인 해석으로 흐를 것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윤종하 총무는 그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주장한다. 성경의 참 뜻을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령께서 각자의 신앙수준과 지금 묵상에 임하는 마음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특정 구절이나 단어를 마음에 와 닿게 하셔서 전문가와는 다른 각도와 깊이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스스로 묵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앎은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도 안다고 보았다. 더욱이 해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은 늘 공동체, 특히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며, 공동체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마 성경해석과 묵상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묵상 나눔(sharing)을 하도록 강조한 것은 바로 자신의 해석을 점검하고, 또 타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다시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묵상의 영역을 6가지로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즉 성경묵상은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공동체(회중)가 함께 하기도 한다고 하여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그 방법에도 연구중심으로 하는 묵상이 있고 적용 중심으로 하는 묵상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에 따라 그가 나눈 6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	그룹	회중
연구중심	개인성경공부(PBS)	그룹성경공부(GBS)	성경강의
적용중심	개인성경묵상(QT)	묵상나눔(sharing)	설교

그는 초신자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있고, 어린이나 노인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있으며, 전문가에게 적합한 방식의 묵상도 있다고 말한다. 즉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여 주신 것이니, 묵상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거나, 신앙의 액세서리로 삼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폭넓은 묵상에 대한 이론을 남긴 것은 그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성서유니온의 총무로 있을 때나 광야교회에서 목회할 때, 늘 회의 전에 당일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나눈 후에 회의를 시작하곤 하였다. 그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사람들이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신 것을 들었다. 심지어 당일 묵상 본문으로 결혼주례사 본문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 늘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여 본을 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6. 성경묵상과 바람직한 기도

성경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윤종하 총무는 성경묵상을 충실히 하면 할수록 더욱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기도는 우리 뜻이 하늘에서 관철되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묵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윤종하 총무는 그같은 기도는 사머니즘적 기도라고 하여 경계하였다. 전도서 5장을 인용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늘 좋은 기도는 아닌 이유를 제시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전 5:1-2)

여기 우매한 자는 말씀을 먼저 듣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와 자신의 크기를 모르는 자를 가리킨다. 그는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심지어 불경하고 위험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래서 윤종하 총무는 에스라성경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동안 목사들이 대다수인 학생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여 큰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기도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하여 일어난 일이다. 그는 기도는 “자기부정”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갯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소개하곤 하였다. 그가 피땀 흘리며 기도한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결국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를 구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가 늘 갖고 다니는 수첩에는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하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에서 그 수첩을 꺼내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실토하신다. 여기 저기 집회를 다니다 보면 즉시 상담을 하는데 그 때마다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으면 꼭 이름과 함께 기도제목을 적어두었다는 것이다.

윤총무님이 묵상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그는 묵상이 늘 성경공부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석보다는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하여 제안한 것이 기도식 묵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하나님이 성경 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묵상하도록 권하였다. 그렇게 메모한 것을 보면서 맨 나중에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권한다. 그에게 기도는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러니 아무 멀리 있는 신이 들도록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내 앞에서 조곤조곤 말씀해주는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는 기도를 강조한 것이다. 통성기도가 때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것과 금식기도가 단식투쟁으로, 철야기도가 철야농성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말씀묵상을 거친 기도는 이와 같은 자

기중심적인 기도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나는 윤총무님의 기도를 좋아했다. 그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셔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다.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가 마치 설교를 요약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권위적인 음성으로 기도할까? 아랫 사람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듯이 평소와는 다른 목직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거슬린다. 그런데 윤총무님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바로 앞에 계신 주님 발 앞에서 그러나 담대하게 대화하는 듯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드린 기도라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한 사람의 기도는 참 멋지고 아름다웠다.

7. 성경묵상과 지혜

윤총무 총무는 말처럼 글도 쉽고 명쾌했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저술하시도록 부탁드렸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셔서 많이 아쉽다. 적절한 시기에 그의 강의 내용이 책으로 잘 엮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혜시리즈” 3권을 남기신 것은 그마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아무도 성경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성도로서 이만큼 주목하고 또 의미있는 가르침을 전한 이는 드물 것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지혜는 결국 새창조의 목표가 되는 성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자면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을 담은 “외경”의 감정이다. 그분을 깊이 알고 경험할 때 경외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는 성경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

성경묵상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롬 12:2). 그는 히브리서 5장을 인용하면서 신앙의 성장한다는 것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고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2-14)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뒤로 물러나 믿음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에 주목한다. 즉 날마다 묵상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지혜를 갖지 못하면 날이 갈수록 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 뜻을 따라 살 것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조차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게 바울의 유언서신인 디모데후서도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꼭 언급되는 구절이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어, 도리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핏박

을 받기에 이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4-17)

그런데 윤중하 총무는 여기 15절에서 바울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말에 주목한다. 말씀묵상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워질 때, 우리는 이 핏박이 심하고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모호해진 때에라도 선을 행하는, 즉 경건하게 사는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묵상의 목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의 새창조”라고 주장한 것은 윤중하 총무의 독특한 관점이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입상으로 간주되는 일이 있지 않은가? 그건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다. 윤중하는 우리는 성경묵상을 통해서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려면(약 3:15-17),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약 1:22)고 가르친다. 즉 성경묵상을 통한 지혜는 교회 안에서 인정 받는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소중한 통찰이고 가르침인가!

8. 성경묵상과 통전적, 전인적 세계관

윤중하 총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는 분명히 가르쳤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할 곳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 포함된다. 직장 and 학교 and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길인지를 성경묵상을 통해서 늘 배워가도록 촉구하였다. 사도 바울의 가정에 대한 권면이 당대에 급진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이었던 것처럼 윤중하 총무의 가정에 대한 권면도 그와 같았다. 그는 가부장적인 가정 운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진단하여 바꾸어가도록 권면하였다. 예를 들면, 80-90년대에 설거지를 남편이 하게 하거나 가정경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충분히 알도록 손수 가계부를 쓰게 하는 일은 파격적인 조언이었다. 사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거나 비싼 차를 사는 것도 경계하였다. 아이들 교육을 엄마에게만 맡기는 것도 지적하였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인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동조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런 이유로 직장을 잃는 한이 있어도 불의에 동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런 가정은 교회가 적당한 직장을 얻을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기수익을 노리는 주식투자라든가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같은 것들은 엄하게 금하였다. 하지만 그는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사회 구조가 변한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세상은 멸망의 날로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일만 남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하

지만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 즉 적극적인 나눔과 환대, 기부 등 목상을 통한 개인윤리나 교회윤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했지만, 시민운동이나 불복종운동을 통한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말씀목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가르치셨다. QT가 광장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골방에 그치고,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고, 그래서 교회가 힐링센터로 변하는 요즘의 세태를 생각하면, 윤종하 총무의 목상의 영역은 광범위했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또한 목상의 전인적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한 분이였다. 그가 성경목상을 가르치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적, 실제적 문제를 보살펴준 이유가 그것이다. 그는 목상의 지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 대해서 두루 고려하여 올바른 성경해석과 더 깊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한 말씀목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수준과 감정적 상태에 따라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또 적용을 할 때도 실천적인 적용 뿐 아니라 세계관적 적용, 즉 마음의 적용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몸이 정신과 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자신부터 규칙적이고 절제있는 삶을 살아내셨다. 나는 그의 선비같은 삶에서 정갈한 메시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全人)을 온전하게 형성해나가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강조하였으며, 그런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하여 “영적인 존재”가 구성된다고 가르쳐왔다. 이는 이분설이니 삼분설이니를 논하던 시기에 일찍부터 인간을 통합적인 존재로 본 헤안이 돋보이는 주장이었다.

9. 성경목상과 상담과 목회

요즘 상담목회나 목상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서 본 윤종하 총무는 이미 생전에 그것을 하고 계셨던 분이였다. 그에게 목상 나눔의 시간은 사실상 상담 시간이었다. 물론 인간에 대한 그분의 깊은 이해나 유연한 사고도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활로를 터주었지만 궁극에 그는 상담이라는 것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잘 진단하고 조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한계를 잘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내담자가 성경목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비추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목상을 통한 상담은 목상일기를 쓰거나 기도문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권면하기도 하였다.

그의 목회는 목상목회였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목상하게 돕고, 교회에서는 목상을 서로 나누고, 심방을 할 때도 당일 목상 본문으로 설교하고 서로 나누었다. 회의나 모임을 하기 전에 꼭 목상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가르쳤다. 지도자가 몸소 자신의 이야기,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 실패, 고뇌, 기도제목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니 성도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 윤종하 총무는 말씀을 전할 때는 때로 강한 분으로 느껴지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누구든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는 분으로 기억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솔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면전에서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크셨을 것이다. 자주 아픈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여 토로하시는 것을 보면 그도 인간이다 싶었다. 하지만 에스라성경연구원에서 원장으로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무례하다 싶을 만한 심하게 목사 학생들의 공격적인 질문과 인격모

독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응대해주시고, 나중에는 따로 불러서 또 강의를 하거나 교제를 하여 기어이 친구로 삼는 모습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그분의 신학을 두고 비판하거나 또 교제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안다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나가는 말

: 열린 마음의 권서인(勸書人), 윤종하

처음 <매일성경>이 나왔을 때 도무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시연하고 섬겨주었다. 무슨 교회 관련 행사가 있는 날이면 손수 매일성경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책장사를 하였다. 권서인(勸書人)의 삶을 산 것이다. 목상하는 사람들이 부르면 어디든 갔다.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가리지 않았고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았다. 독일에 있는 간호사들이 윤총무님의 방문을 받고 감격해했고,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손수 경비를 마련하여 찾아와 섬겨주신 모습을 지금도 회고하고 있다. 그가 다닌 지역은 유럽과 북미는 물론이고 남미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을 망라하고 있다. 체력도 좋으셨고 어느 나라에서든 아무 것이나 잘 드셨다. 여행을 즐기셨고, 각국의 미술품을 감상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렇게 성경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매우 좋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무척이나 아꼈던 분이였다. 책이나 강의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진선미(眞善美)를 잘 목상하고 만끽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인은 알고 누리신 듯하다.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나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배움이 되었다.

30살도 더 넘게 차이가 필자에게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으셨다. 모든 사람을 존대하면서 대해주셨고, 누가 강의하거나 설교하든 맨 앞에서 귀에 손을 대고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늘 토의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상대방의 좋은 생각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받아들여시겠다고 하시는 적이 종종 있었다. 유학 중에 한 번씩 방문하면, “요즘 영국의 신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가 더 알아야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묻곤 하셨다. 필자가 ‘독자반응비평’이나 ‘후기구조주의’ 문학 이론 등이 현재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이들도 성경목상을 직접 하도록 해주는 좋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자 좋아하시던 기억이 난다. 박남우 선생을 통해서 옹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고 좋아하셨다. 그분을 15년 이상 뵈면서 특히 에스라성경연구원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특히 성경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고 또 강의나 설교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 성경본문을 더 자주 강의하실 기회를 얻었고 갖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과 더 자주 교류하면서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이 훨씬 더 잘 정리되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분의 열린 마음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분명한데도, 담대하게 안식일이나 십일조, 더 나아가 구원의 탈락이나 원죄론 문제까지 대담하게 제안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는 평생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선배의 기도와 수고로 이제는 격월간으로 나오는 <매일성경>은 매호 나올 때마다 20만명 이상의 독자들의 손에 전달되고 있다. 유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하여 1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다. 나는 윤종하 총무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가르쳐주셨던 그 수고의 열매이다. 그가 몸소 보여주었던

목상인의 삶,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찰한 지도자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배운 그의 제자였고 성도였고 독자였다. 가끔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윤총무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훨씬 더 결정하기가 쉬웠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썼던 윤총무님의 삶을 기억하기에, 그분이라면 분명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같이 갈 수 없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 땅에 보내어 성서한국을 이뤄주신 것에는 깊이 감사드리며 흥내라도 내며 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첫 책 <목상의 여정>을 윤총하 총무님께 헌정한 것은 나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목상을 통해 그윽해진 그분의 인격과 명징한 분별력, 누구든 차별 없이 진정성을 갖고 대해주신 진한 사랑과 투명하고 정직한 삶,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고 감사이다. 주님 품에 안기신지 벌써 10년이라니. 나는 그새 얼마나 목상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있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돌아본다. 그분은 평생 제자를 두지 않겠다고 하셨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통해 내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과 만났다. 그분에게서 교회를 배웠고, 교육을 배웠고, 선교를 배웠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진전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총무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도 윤총무님이 살아계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싶으니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늘 미소 가득 하셨던 그 모습으로 대해주실 것이다. “박대영 형제, 어려운 일 없습니다?”라고 물어주실 것 같다.